

《內經》에 대한 對句法的研究(3)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김인락

I. 緒論

《黃帝內經》의 기본사고는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는 데 있고 이를 드러내는 《내경》의 말들도 음양의 평형에 충실하다고 보는데, 이중 하나로서 대구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전제아래 《내경》의 본문을 교정하고 재해석하여 논문을 두편 발표하였다.¹⁾ 《내경》의 언어가 반드시 대구법에 충실하여야만 할 의무는 없고, 말이 갖는 한계성때문에 대구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대구를 이룰 수가 있다면 이루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경》의 취지에 충실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일곱 구절을 택하여 대구법에 충실하도록 원문을 교정하고 해석하였다.

II. 研究對象

1.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 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淡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是以志閑而少欲, 心安而不懼, 形勞而不倦; 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 故美其食, 任其服, 樂其俗; 高下不相慕; 其民故曰朴. 是以嗜欲不能勞其目, 淫邪

不能惑其心; 愚智賢不肖不懼於物; 故合於道.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衰者, 以其德全不危也. (上古天真論篇)

2.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金匱眞言論篇)
3.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音爲宮, 在聲爲歌, 在變動爲噦.
在音爲商, 在聲爲哭, 在變動爲咳.
在音爲羽, 在聲爲呻, 在變動爲慄. (陰陽應象大論篇)
4.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藏氣法時論篇)
5.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
脾病者, 日昃慧, 日出甚, 下晡靜.
肺病者, 下晡慧, 日中甚, 夜半靜.
腎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晡靜. (藏氣法時論篇)
6. 五氣所病, 心爲噫, 肺爲咳, 肝爲語, 脾

1) 《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研究 (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4 - 88쪽, 1991, 서울.

《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研究(2), 대한원전의사학회지, 34 - 40쪽, 1992, 서울.

爲吞，腎爲欠，爲嚙。(宣明五氣)

7. 病甚則棄衣而走，登高而歌，或至不食數日，踰垣上屋。(陽明脈解篇)

III. 本論

1. 夫上古聖人之教下也，皆謂之，虛邪賊風，避之有時，恬淡虛無，眞氣從之；精神內守；病安從來，是以志閑而少欲，心安而不懼，形勞而不倦；氣從以順；各從其欲，皆得所願。故美其食，任其服，樂其俗；高下不相慕；其民故曰朴。是以嗜欲不能勞其目，淫邪不能惑其心；愚智賢不肖不懼於物；故合於道。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衰者，以其德全不危也。(上古天真論篇)

“夫上古聖人之教下也，皆謂之”는 《太素》에서 “夫上古聖人之教也，下皆謂之”로 되어 있다.

《太素》를 따른다면 성인이 말로써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실천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虛와 賊은 각각 邪와 風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虛邪와 賊風이 구조가 같다.

恬과 淡은 의미가 같고 虛와 無가 의미가 같으므로 염담과 허무가 구조가 같다.

그리고 “虛邪賊風，避之有時”와 “恬淡虛無，眞氣從之”의 之는 모두 지시대명사로서 각각 “虛邪賊風”과 “恬淡虛無”를 가리킨다. 따라서 “虛邪賊風，避之有時”와 “恬淡虛無，眞氣從之”가 대구이다.

“精神內守”와 “病安從來”는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志閑而少欲”과 “心安而不懼” 그리고 “形勞而不倦”이 대구이며 각레이고 “氣從以順”이 셋의 총론이 되며 “各從其欲，皆得所願”이 결론이다. 그리고 閑과 安과 勞가 모두 동사이고 志와 心과 形이 각각 이들의 목적이 되며 而는 3개 모두 순접이다.²⁾ 의미는

‘의지를 단속하여 욕심을 적게 하였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몸을 수고롭게 하여 권태롭지 않게 하였다’가 된다.

“美其食”과 “任其服” 그리고 “樂其俗”이 대구이고 각레이며 “高下不相慕”가 셋을 총괄한 것이고 “其民故曰朴”이 결과이다.

“嗜欲不能勞其目”과 “淫邪不能惑其心”이 대구이고 각레이며 “愚智賢不肖不懼於物”이 총괄한 것이고 “故合於道”가 결과이다.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衰者，以其德全不危故也”가 이 문장에서는 최종결론이다.

이와 틀을 같이 하여 각레와 총괄한 것 그리고 결과의 순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본다면 처음의 “虛邪賊風，避之有時，恬淡虛無，眞氣從之，精神內守，病安從來”도 “虛邪賊風，避之有時”와 “恬淡虛無，眞氣從之”가 각레이고 “精神內守”는 총괄이며 “病安從來”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장구조는 다음에 나오는 “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眞，不知持滿，不時御神，務快其心，逆於生樂，起居無節，故半百而衰也”에서도 찾을 수 있다. “以酒爲漿”과 “以妄爲常”은 구체적인 예이고 “醉以入房”은 이를 총괄한 것이다. “以欲竭其精”과 “以耗散其眞”은 각레이고 “不知持滿”은 이를 통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不時御神”과 “務快其心”은 실례이고 “逆於生樂”은 이를 종합한 것이다. “醉而入房”과 “不知持滿” 그리고 “逆於生樂”을 한마디로 결론지은 것이 바로 “起居無節”이다.³⁾

2. 故背爲陽，陽中之陽，心也。

背爲陽，陽中之陰，肺也。

2) 김인락: 《내경》의 몇몇 句節에 대한 對句法的 研究(1).

3) 김인락: 《내경》의 몇몇 구들에 대한 대구법적 연구(1), 60-61쪽.

腹爲陰，陰中之陰，腎也。
腹爲陰，陰中之陽，肝也。
腹爲陰，陰中之至陰，脾也。

이 구절에서는 五臟을 陰陽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근거를 위치에서 두고 心肺는 背部에 있어서 양에 속하며 肝腎脾는 腹部에 있어서 음에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背와 腹이 짝이 되느냐는 것이다. 背라하면 일반적으로 등전체를 의미하여 脛경막위와 아래를 모두 의미한다. 배는 당연히 脛경막아래를 의미하므로 이 의미 그대로서는 背와 腹은 짝이 맞지 아니하다. 그러하므로 背의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한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背者胸中之府，背曲肩隨，府將壞矣。腰者腎之府”라고 하여 背와 腰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瘧論》에서 “腰背頭項強”이라 하였고, 《咳論》에서는 “腎咳之狀，咳即腰背相引而痛，甚即咳涎。”이라 하였다. 이로서 본다면 背와 腰는 상하관계이다. 《脈解》에서는 “強上引背”라고 하였는데 于項이 上은 項을 빌린 글자라고 하여 強上引背를 뒷목이 뻘뻘하고 등이 당긴다로 보았다. 이로서 본다면 項과 背의 관계도 상과 하의 관계이다. 결국 등뼈는 項과 背 그리고 腰로 구분된다.

背는 목아래 허리위이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背와 腹을 짝을 짓고 있고 背에 심과 폐가 있어서 양에 속하고 腹에 신과 간과 비가 있어서 음에 속한다고 하였으므로, 背는 脛경막위쪽이고 腹은 脛경막아래쪽이어야 한다. 전후로 본다면 頸과 項, 胸과 背, 腹과 腰가 된다. 결국 背腹은 脛경막을 기준으로 상하를 의미한다.

- 3. 在音爲角，在聲爲呼，在變動爲握。
在音爲徵，在聲爲笑，在變動爲憂。
在音爲宮，在聲爲歌，在變動爲嘯。
在音爲商，在聲爲哭，在變動爲咳。

在音爲羽，在聲爲呻，在變動爲慄。

角徵宮商羽와 呼笑歌哭呻은 모두 소리에 관한 것으로서 對句를 이룬다. 그런데 心에서 “在變動爲憂”라고 하였는데 憂라 함은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것이므로 계절로서는 가을과 통하고 오장으로서서는 폐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도 여름과 관련이 있는 심에 憂를 배속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憂를 근심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찾든가, 아니면 다른 글자의 音을 빌린 것이거나 비슷한 글자를 잘못 쓴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우창은 《老子》 55장에서 “아기는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않는다(赤子終日號而不嘶)”라고 한 것을 근거로 憂자에다 口변을 붙여 목이 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창은 간에서 握은 手변을 口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唄이 우는 소리가거나 선웃음치는 소리, 또는 《說文》에서는 말이 분명치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腎에서 慄이라고 한 것도 소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慄자의 心변을 口변으로 바꾼다면 의미는 《廣音》에 의하여 ‘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脾에서 嘯이라고 한 것도 소리에 관한 것으로 보면 嘯자는 딸꼭질 할 일, 방울소리빼, 환해질 일자이다.

握, 憂, 嘯, 咳, 慄은 모두 오장이 정상일 때가 아니라 병적일 때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임상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 4. 肝病者，平旦慧，下晡甚，夜半靜。
心病者，日中慧，夜半甚，平旦靜。
脾病者，日昃慧，日出甚，下晡靜。
肺病者，下晡慧，日中甚，夜半靜。
腎病者，夜半慧，四季甚，下晡靜。

이 구절은 오장의 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앞 뒤의 구절을 살펴보면 시간의 단위를 3가지로 설정하였는데 한해와 하루 그리고 十干이다. 한해는 봄 여름 장하 가을 그리고 겨울인데 十干으로서는 각각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이고 하루로서는 平旦, 日中, 日昃, 下晡, 夜半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살펴보자.

| | | | | | |
|---|---|---|----|---|---|
| | 春 | 夏 | 長夏 | 秋 | 冬 |
| 肝 | 起 | 愈 | ? | 甚 | 持 |
| 心 | 持 | 起 | 愈 | ? | 甚 |
| 脾 | 甚 | 持 | 起 | 愈 | ? |
| 肺 | ? | 甚 | 持 | 起 | 愈 |
| 腎 | 愈 | ? | 甚 | 持 | 起 |

| | | | | | |
|---|----|----|----|----|----|
| | 甲乙 | 丙丁 | 戊己 | 庚辛 | 壬癸 |
| 肝 | 起 | 愈 | ? | 加 | 持 |
| 心 | 持 | 起 | 愈 | ? | 加 |
| 脾 | 加 | 持 | 起 | 愈 | ? |
| 肺 | ? | 加 | 持 | 起 | 愈 |
| 腎 | 愈 | ? | 加 | 持 | 起 |

| | | | | | |
|---|----|----|----|----|----|
| | 平旦 | 日中 | 日昃 | 下晡 | 夜半 |
| 肝 | 慧 | ? | ? | 甚 | 靜 |
| 心 | 靜 | 慧 | ? | ? | 甚 |
| 脾 | 甚 | ? | 慧 | 靜 | ? |
| 肺 | ? | 甚 | ? | 慧 | 靜 |
| 腎 | ? | ? | 甚 | 靜 | 慧 |

한해를 단위로 할 때 병은 愈, 甚, 持, 起라고 하였고 十干에서는 愈, 加, 持, 起라고 하였으며, 하루에서는 甚, 靜, 慧라고 하였다. 따라서 甚과 加가 의미가 같고, 持와 靜, 起와 慧가 의미가 같다.4)

4) 慧는 《廣雅》「釋詁」에 “慧, 靈也”라고 하였는데 이 편에서 慧는 의미가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낫는다는 의미이며 심하다는 것과

한해를 단위로 본다면 자신이 왕성한 계절 바로 다음에는 병이 완전히 낫고, 자신을 이기는 계절에는 병이 심해지고, 왕성한 계절 바로 앞에는 병이 소강상태가 되며, 자신이 왕성한 계절에는 병이 조금 낫게 된다. 간을 예로 든다면 여름에 병이 조금 낫고 가을에 심해지며 겨울에 소강상태가 되고 봄에 조금 낫는다.

十干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에서도 간, 심, 신은 이와 같다. 脾에서 日出甚, 下晡靜이라고 한 것과 肺에서 夜半靜이라고 한 것이 문제시 되는데, 日出甚是 林億 등이 《甲乙經》을 근거로 平旦으로 교정하였듯이 글자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결국 문제로 남는 것은 下晡靜과 夜半靜이다.

폐병이 소강상태가 되려면 자신이 왕성하기 바로 前인 長夏나 戊己 아니면 日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야반으로 되어있다. 야반이라면 폐의 병이 완전히 나올 때이다. 따라서 丹波元簡이 《素問識》에서 교정했듯이 야반을 일질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비병이 하포에 소강상태로 된다는 것인데 하포에는 비병이 완전히 나올 때이다. 따라서 비병이 소강상태가 되려면 자신이 왕성해지기 바로 전인 여름이거나 병정이거나 일중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下晡는 日中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정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

| | | | | | |
|----|----|----|----|----|---|
| | 春 | 夏 | 長夏 | 秋 | 冬 |
| 甲乙 | 丙丁 | 戊己 | 庚辛 | 壬癸 | |
| 平旦 | 日中 | 日昃 | 下晡 | 夜半 | |
| 肝 | 起 | 愈 | ? | 甚 | 持 |
| 心 | 持 | 起 | 愈 | ? | 甚 |
| 脾 | 甚 | 持 | 起 | 愈 | ? |
| 肺 | ? | 甚 | 持 | 起 | 愈 |
| 腎 | 愈 | ? | 甚 | 持 | 起 |

반대이다.(許學東:設疑有理 辨析有據, 의고문지식, 1983,3, 16쪽.

음과 같다.

5.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丹波元堅은 脾苦濕, 急食苦以燥之에서 苦를 鹹으로 고쳐야 한다 하었는데⁵⁾ 胡天雄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였다.⁶⁾ 하지만 이편 마지막에

肝色青, 宜食甘, 粳米, 牛肉, 棗, 葵皆甘.
心色赤, 宜食酸, 小豆, 犬肉, 麻, 李, 韭皆酸.
脾白色, 宜食苦, 麥, 羊肉, 杏, 苽皆苦.
脾色黃, 宜食鹹, 大豆, 豕肉, 栗, 蘆皆鹹.
腎色黑, 宜食辛, 黃黍, 鷄肉, 桃, 葱皆辛.
이라고 하였고, 《靈樞·五味》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苦를 鹹으로 바꾸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물이 농도가 배추보다 진하므로 배추의 수분이 소금물로 빠져나와서 배추는 숨이 죽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먹으면 소화기에서 소금의 농도가 몸속보다 높아지므로 수분이 몸에서 소화기안으로 나오게 된다.

6. 五氣所病, 心爲噫, 肺爲咳,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 爲噦.

이 구절은 침을 잘못 찔렀을 때에 드러나는 부작용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肝, 心, 脾, 肺가 각각 語, 噫, 吞, 咳로 되어있고 腎만은 欠과 噦로 되어있다. 《태소》에서는 噦자가 없고 欠하나로만 되어있다. 《靈樞·九鍼論》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素問·刺禁論》에서는 반대로 欠이 없고 噦로만 되어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 | 宣明五氣 | 刺禁 | 九鍼 |
|---|------|----|----|
| 간 | 語 | 語 | 語 |
| 심 | 噫 | 噫 | 噫 |
| 비 | 吞 | 吞 | 吞 |
| 폐 | 咳 | 咳 | 咳 |
| 신 | 欠 | 噦 | 欠 |

다.

語, 噫, 咳, 噦를 살펴본다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기운이 입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脾만은 삼킨다는 의미인 吞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吞자는 삼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說文》에 의하면 吞은 한숨쉬다. 한탄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吞은 吞과 같다 고 본다.

7. 病甚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至不食數日 踰垣上屋, 所上之處皆非其素所能也, 病反能者何也.

“棄衣而走”와 “登高而歌”에서 而자는 상황어와 동사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棄衣而走”는 먼저 옷을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달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登高而歌”는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간 뒤에 거기에서 노래부르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至不食數日, 踰垣上屋”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지 여러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或至不食數日”과 “踰垣上屋”사이에 而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은 《靈樞·經脈》에서 찾을 수 있다.

“是動則病漸漸振寒, 善伸, 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責嚙腹脹, 是爲胎厥.”

여기에서는 3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다.

5) 素問紹識: 一中社, 1991, 서울, 448쪽.

6) 素問補識: 一中社, 1992, 서울, 162쪽.

그리고 가장 심해진 단계인 3단계에서도 증상을 3가지 말하였는데 마지막에 배에 가스가 차서 팽팽하고 배가 부풀다라고 하고서는 이를 脘厥이라고 하였다. 이것과 《소문》을 비교한다면 배가 부풀고 가스가 차기때문에 음식을 며칠간이나 먹지도 않고서도 여전히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하므로 “實嚮腹脹”은 “或至不食數日”과 의미가 같고 다음에 “而踰坦上屋”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傷寒論》에서는 承氣湯을 사용하는 증상이고 陽明實證이 극도에 달한 것이다.

IV. 結 論

《內經》에서 일곱 구절을 선택하고 대 구법에 근거하여 원문을 교정하고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上古天真論篇〉에서 성인이 몸소 실천한 내용은 3단계로 논의가 되었는데 각례와 총괄 그리고 결론이다.

“虛邪賊風，避之有時”와 “恬淡虛無，眞氣從之”가 각례이고 “精神內守”가 이를 총괄한 것이고 “病安從來”가 결론이다.

“是以志閑而少欲”과 “心安而不懼” 그리고 “形勞而不倦”이 각례이고 “氣從以順”이 이를 총괄한 것이며 “各從其欲，皆得所願”이 이의 결론이다.

“故美其食”과 “任其服” 그리고 “樂其俗”이 각례이고 “高下不相慕”가 이를 총괄한 것이며 “其民故曰朴”이 결론이다.

“是以嗜欲不能勞其目”과 “淫邪不能惑其心”이 각례이고 “愚智賢不肖不懼於物”이 이를 총괄한 것이며 “故合於道”가 결론이다.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衰者，以其德全不危故也”는 “病安從來”와 “各從其欲，皆得所願”과 “其民故曰朴”을 총괄한 결론이다.

2.背와 腹이 대구를 이루어 배에 심과 폐

가 있고 복에 간과 腎 그리고 脾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배는 등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횡경막을 기준으로 위쪽을 의미하고 복은 아래쪽을 의미한다.

3.握, 憂, 噦, 咳, 慄은 모두 소리에 관한 것으로서 악은 手변을 口변으로, 憂에는 口변을 붙이고 慄은 心변을 口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하더라도 아직 의미를 완전하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4.脾苦濕, 急食苦以燥之에서 苦는 鹹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5.오장자신이 왕성해지는 때 바로 다음에는 병이 완전히 낫고, 자신이 이기는 계절에는 병이 심해지며, 왕성한 계절 바로 앞에는 병이 소강상태가 되며, 자신이 왕성한 계절에는 병이 조금 낮게 된다. 따라서 脾臟이 병들면 병이 소강상태가 되는 것은 下晡가 아니라 日中이어야 한다. 그리고 폐가 병들면 夜半에 병이 소강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질 무렵에 소강상태가 되어야 한다.

6. 간, 심, 폐, 신에서 語, 噫, 咳, 噎가 모두 기운이 입밖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脾가呑으로 된 것은 삼키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呑를 빌린 글자로 보고 한 숨쉬는 것이거나 한탄하는 것으로 본다.

7.“棄衣而走”와 “登高而歌”가 대구를 이루어서 옷을 벗어버린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리고 높은 데 올라간 상태에서 노래부른다. 마찬가지로 “或至不食數日，踰坦上屋”도 이와 대구를 이루려면 “或至不食數日”과 “踰坦上屋”사이에서 而자를 더 넣어야 한다. 따라서 수일동안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양명실증을 가리킨다.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3. 金仁洛: <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研究(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4 - 88쪽, 1991, 서울.
4. 金仁洛: <2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研究(2), 대한원전의사학회지, 34 - 40쪽, 1992, 2서울.
5. 丹波元簡: 素問識, 一中社, 1991, 서울.
6. 丹波元堅: 素問紹識, 一中社, 1991, 서울.
7. 廣言
8. 老子
9. 說文解字
10. 于鬯: 香草續校書.
11. 許學東: 設疑有理 辨析有據, 의고문지식, 1983, 3.
12. 胡天雄: 素問補識, 一中社, 서울, 1992.